

자립준비청년 年 2500명… “지자체·기업, 지속적 지원 필요”

인터뷰 |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자립정착금으로 집 구하기 부족
지자체 금융지원, 지속 어려워
기업과 협약 맺어 장기 지원 목표
멘토와 직접 상담가능한 앱 구축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2500명씩 사회로 나오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시설, 지원 등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다. 2500명이라는 인원을 해마다 감당하기 위해선 지자체와 대기업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메트로신문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금행넷) 의장과 자립준비청년을 주제로 인터뷰를 가졌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어떤 개념인지.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이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위탁 가정 등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꾸고 아동생활시설뿐 아니라 가정위탁 보호종료자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매년 전국에서 2500여명씩 나오고 있으며 이들이 사회로 나올 경우 자립정착금 500만~1000만원(지자체별상이), 자립수당 월 30만원, LH 임대주택을 1순위로 지원할 수 있다.”

-금행넷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을 3년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금행넷이 개발한 자립보호청년 앱 ‘함께+사업’ 화면.

/금융과행복네트워크

들었는데 시작한 계기는.

“시설에서 사회로 나올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로 나올 때 받는 자립정착금을 부모나 주변지인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에게 기밀 곳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을 위해 어떤 모델을 제안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자립준비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들이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디지털 금융교육과 기업가정신 등 융합 콘텐츠 개발을 개발했다. 자산형성 관리를 위한 은행권과 협약 자산관리 지원을 받는 자립준비청년

을 위한 융복합금융상담 교육과 상담을 위한 전용 앱을 개발해 금행넷과 업무협약을 맺은 단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수행 전체 프로그램 진행 전·후에 만족도와 효과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가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이 가장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립정착금 500만~1000만원(지자체별상이), 자립수당 월 30만원 받는 걸로 집을 구하지 못한다. 자립정착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빼앗기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거주지만 보장이 되면 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힘든 상태다. LH 임대주택에 1순위로 지원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보증금이 없어 지원을 못하고 있다. 또한 취업

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다.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우 취업준비기간 인턴 경험이 없어 대부분의 서류에서 탈락한다. 인턴에 지원을 해도 자격요건에 대부분이 걸려 인턴조차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에서 이들을 위한 인턴 제도를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비대면시대에 자립준비청년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금행넷에서는 ‘함께+’ 라는 앱을 개발해 앱에서 자립준비청년들과 멘토들이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했다. 앱 개발 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간이 있을 지 찾아봤는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었다. 아쉬운 점은 민간에서 앱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나서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앱을 개발했으면 한다.

-앞으로 계획과 정부나 민간 특히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재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지자체별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단순 금융지원이지 이들을 지속적으로 케어 하지 못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따뜻한 희망과 꿈을 전달 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 재단,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싶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국회 정무위원장 만난 여신금융협회... 공정경쟁 등 논의

여신금융회사 대표이사 간담회
비금융과 경계 희미... 체질 개선 추진

여신금융협회가 여신전문업권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국회 정무위원장(윤재욱 의원)을 초청해 여신금융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적 역할 이행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특히 약 7600억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와 4700억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 여신금융업권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언급했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에



(왼쪽부터)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 최원석 비씨카드 대표, 추광식 롯데캐피탈 대표, 목진원 현대캐피탈 대표, 김정기 우리카드 대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협회장, 윤재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권길주 하나카드 대표, 김덕현 현대카드 대표, 정문진 신한캐피탈 대표, 황수남 KB캐피탈 대표, 김지원 아주아이비투자 대표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서도 신용카드·리스할부·신기술금융업권이 우리 경제에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어 공정경쟁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융업에 진출하는 빅테크 기업과 여신금융업권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신금융업권에서는 최근의 금융서

비스 경향이 디지털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금융-비(非)금융 간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빅-블러(Big-Blur)’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신금융회사도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의 금융법률과 제도 역시 빠른 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가 최첨단 디지털 지급결제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심사 및 통과, 데이터 공유 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기술 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 등도 요청했다.

/백지연 기자 wdus0248@

우리은행 AI 예측 마케팅 ‘WON맵시’

우리은행은 사업부서 마케팅 담당자가 전문데이터 분석가의 도움 없이 인공지능(AI) 예측 모델 기반으로 마케팅 대상을 추출할 수 있는 타겟팅 시스템인 ‘WON맵시(MapSy)’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WON맵시(MapSy)’는 데이터 추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마케팅 담당자도 직접 마케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추출 요건을 입력하면 고객의 주요 등 빅데이터 모델을 조합한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마케팅 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WON맵시 구축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와 마케팅 활동의 정확성을 높이고 설계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AI 예측 모델들을 통합해 고객의 금융거래 특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고객 금융 DNA Map’을 작년 5월에 발표하고 이에 기반한 시범 타겟마케팅을 실시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가와 마케팅 담당자 간의 협의 등 수작업으로 진행된 데이터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이번 ‘WON맵시(MapSy)’ 구축으로 담당자가 직접 마케팅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빠르게 마케팅을 추진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WON맵시(MapSy) 구축으로 사업부서 담당자가 직접 마케팅군을 빠르게 선정할 수 있어 소요시간 단축과 고객 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내년도 물가 상승률, 한은 목표치 상회”

» 1면 ‘물가 상승률 5%’서 계속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공공요금 추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왔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연초 이후 치솟으면서 이제는 추가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물가 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공공요금이 재차 오를 수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요금 인상은 올해 내내 계속돼 내년도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2% 목표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최근 기대인플레이션도 심상치 않다. 기대인플레이션이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즉, 경제주체들이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전망이 실제로 물가상승

을 일으키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된다.

그런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지난 4월 3.1%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3년 4월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의 가파른 성장세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기준 5.4%를 기록하며 지난 2008년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유로지역의 지난 4분기 중 기대인플레이션도 7.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한은이 예상한 올해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를 넘어선 만큼 국내 물가에 경고등이 켜지면서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25일 진행된 출입기자단 상견례에서 물가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전반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경기 부양 중)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화정책이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